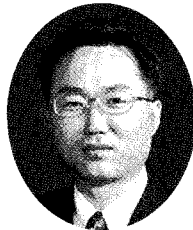


인공감염의 요령과 주의할 점



이 오 형 원장

이오형양돈전문컨설팅

양돈장을 경영하면서 생산 성적을 떨어뜨리는 큰 두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모든 번식이며 나머지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이다. 그 질병 중에서도 포유자돈의 설사병이다.

포유자돈의 설사병은 양돈농장에서 아직까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대책이나 예방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많은 양돈장에서 인공 감염을 시키는 것을 선택하는데 인공감염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실행해해야 한다.

인공감염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따르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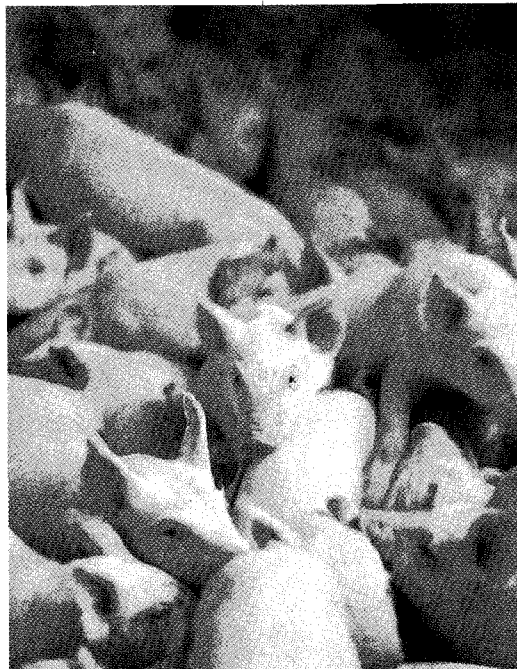
1. 인공감염에 앞에 반드시 검사해야 할 것

은 각종 전염성 질병의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전염성 질병이란 돼지 오제스키병, PRRS 등 기타 전신성 질병을 검사한 후 설사병 이외 다른 질병이 없다는 진단 후 결정한다.

다른 전신 질병이 있을 경우 인공 감염을 실시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 할 것이며, 농장의 존폐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한다.

2. 전염성 설사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병한 농장은 인공감염을 시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인공 감염 전 조치 사항은 모든 돼지의 이동을 완료한다. 인공감염 후 최소 2주간은 이동하



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길 면 길수록 좋다.

또한 분만사 출입문에 별도의 방역복, 장화 등을 비치하여 출입시 사용하며, 농장 주변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인공감염 돈사는 인공 감염 완료까지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머지 돈사는 매일 1회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공감염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인공면역방법

1. 분변 채취

가. 설사를 시작하여 2일 정도 경과한 자돈 중 살아 있는 자돈의 장

나. 신선한 분변 채취 - 깨끗한 용기에 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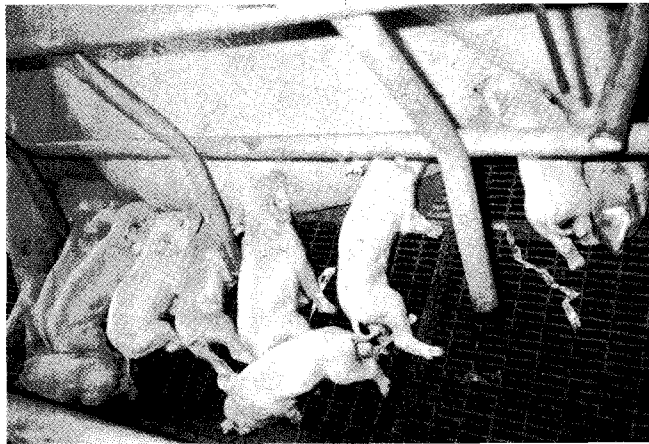
다. 소독약 사용은 절대 금지

라. 자돈의 장은 죽기전 자돈에서 채취하여 냉동 보관했다가 믹서기로 갈아서 사용. 분변한 줌 + 자돈 소장10두 혼합 → 한 양동이 모돈 100두 감염(유우에 혼합)

마. 모든 작업은 그늘에서 실시하여 바이러스가 햇빛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바. 항생제 페니실린제제(400만 단위) 20병/물 한 양동이 반드시 항생제를 혼합하여 급여해야 한다. 항생제를 혼합하는 목적은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

사. 종이컵으로 한 컵씩 급여(사료 조금 준



▲인공 감염 전 조치 사항은 모든 돼지의 이동을 완료한다. 인공감염 후 최소 2주간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길 면 길수록 좋다.

다음 사료에 부어 줌): 정확히 모돈이 먹을 수 있도록 급여 할 때는 신중하게 급여해 준다.

아. 3일간 연속 급여: 1회 급여로 설사 발병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3일간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후보돈 전체 급여: 신규로 입식한 후보돈이나 자체 선발된 후보돈은 반드시 인공감염해야한다.

※분만사는 인공감염 하지 말 것

분만사 철저히 차단 - 인원, 돼지 이동 금지

차. 분만사 모돈이 완전히 이유 될 때 초산모돈과 함께 위 방법과 동일하게 감염되며, 인공 감염전에 모든 돼지 이동을 완료하고 인공 감염 후에는 돼지 이동을 최대한 늦춘다.

2. 모돈의 분만사 입주는 최대한 늦게 입주한다. 모돈이 완전히 설사가 끝난 후 2주 정도 경과해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공 감염 후 2주 후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돈사의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첨가해 준다.

4. 분만사 자돈 이동은 설사 종료 후 이동

5. 후보돈 입식 입주 연장, 격리하여 사용

6. 입주시 모돈을 소독약으로 완전히 세척하고 입주

7. 번식사 설사 모돈은 항생제, 영양제, 대사촉진제 근육 주사

8. 자돈사 - 카바독스 2kg+콜리스트틴 2kg→
사료 1톤당

9. 이유 모돈에 미네랄제제 근육 주사(10cc)

10. 백신(PED, TGE) : 지속적으로 접종요망

1차 분만 6주전

2차 분만 3주전

11. 소독

분만사, 자돈사, 육성, 비육사- 1일 1회 실시
임신사 -인공감염 끝난 다음날부터 설사 모
돈에 약욕 실시

12. 분만사 자돈 설사

가. 무간호 분만 분만사 인원 고정 배치.

나. 분만사

1) 보온 관리 분만틀 뒷부분에 보온

등 설치하여 분만 완료 후 철
거

2) 초유 급여 30분
이내

다. 7일령

1) 견치, 꼬리 자
르기 ②철분 주사

라. 모돈 설사 돈
방 소독 실시

마. 설사 돈방 자돈
경산 모돈과 교체 포유실
시

바. 설사 심한 개체 1주령 이상
또는 치료 가능한 개체 복강 주사

1) 복강주사액 5% 포도당 1l + 항생제
20cc + 영양제 10ml + 대사촉진제 30ml

2) 두당 10ml 복강주사

3) 돈방당 1개 주사기 사용

4) 설사 치료시 돈방에 들어가지 말고 통로
에서 자돈 치료 실시

사. 모돈 입주시 - 철저히 수세, 세척, 소



▲다른 전신 질병이 있을 경우 인공 감염을 실시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 할 것이며, 농장의 존재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한다.

독 실시

13. 모돈 무유증

가. 모돈 예방

1) 분만 3일 전 OTC-LA
15cc 주사

2) 분만시 대사 촉진
제 10cc 주사

3) 무유증 모돈 -
비유 촉진 호르몬
제제 주사

나. 온도 관리 -
모돈에 맞춰서 온도
관리

다. 분만사 입식 후 모
돈에 항생제 첨가

14. 분만사 설사 돈방 생식회를 1

일 2회 소량씩 뿌려 줄 것.- 아주 소량씩 뿌려
줘야함, 이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며 모돈에
는 절대로 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 인공감염에 대해서 알아 봤지만 무엇
보다도 차단 방역이 선행되는 관리가 필요하
고 설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 수의
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양돈**

**포유자돈의 설사병은
양돈농장에서 아직까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대책이나 예방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많은 양돈장에서 인공
감염을 시키는 것을 선택하는데 인공감염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실행해해야 한다.
인공감염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따르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